

元老科學技術者の 証言

13

— 迂餘曲折 끝에 物理学 專攻 —



權寧大博士篇(上)

◎ 略 歷 ◎

- 1908. 6. 28 黃海道開城出生
- 現住所 서울 鍾路區 東崇洞 1의 7 (TEL: 762-3242)
- 1926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卒
- 1933 日本北海道帝大 理學部 物理學科卒
- 1938~45 松都 및 開城中學校 敎員, 校長
- 1946~73 서울大學敎授, 文理科大學長, 大學院長
- 1957 學術員會員
- 1960 韓國物理學會會長
- 1964 KORSTIC 會長
- 1966 科學技術振興委員
- 1969 IUGG 韓國委員會委員長
- 1974 서울大 명예敎수, 原子力委 常代委員

- △ 1953 UN從軍記章
- △ 1963 文化褒章
- △ 1967 科學技術賞本賞
- △ 1971 國民勳章冬栢章, 25年勤続表彰 (서울大)
- △ 1973 三·一文化賞本賞, 國民勳章牡丹章

◇ 教育者家庭에서 出生 ◇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漢文書堂을 해오신 우리집안은 철저한 敎育자가 정이었다. 어린시절 어쩔수 없이 漢文공부를 하다가 좀늦게 10살이 되어서야 지금은 북한에 있는 長端國民學校에 입학, 현대敎育에 접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눈팔지 않은 나의 외길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4년제였던 보통학교가 막 6년제로 학제개편이 실시되어 5학년으로 진급을 해야할지 中學으로 진학해야 할지 망설이던중 한학교에서 한명씩 추천생제도를 실시하는 京城第1高等普通學校(현 京畿中學校)에 진학기로 결정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 학교는 학생이나 선생들 대부분이 일본인 들이고 한국인 선생이 2~3명 뿐이어서 나의 中學時節은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더구나 우리집에 留宿하던 培材학생을 보니 朝鮮語도 배우고 國史도 배워 한없이 부러웠다.

이런상황이라 자연히 학업은 등한시하고 다 른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제일먼저 손댄것이 寫眞. 입학후부터 시작된 사진찍기 장난은 당시 코닥회사에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의 베스트코닥카메라를 밤낮없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밤에는 집에서 현상에 여념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몇해하다 보니 盡力이 나서 집어치우고 라디오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日本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막 시작하려는 시기여서 라디오라는것도 신기한것이 없었다. 鋤石을 쓴 自作라디오로 듣자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당시 가장 갖고 싶었던 텔레퐼콘레 시버는 값이 28원, 학교월사금이 한달 1원이었으니 꽤나 비싼편이어서 살 엄두도 못냈다. 오랜 고민끝에 14원을 주고 한쪽만 사서 듣긴 했지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4학년이 되자 京城放送이 시작, 지금의 中央庁 앞 騎動隊자리 부근 通信局電氣試驗室에서 시험방송중이었다. 이사실을 알고 다짜고짜 찾아가면 내가 방송국 구경을 간청했더니 당시 책임자로 있던 노창성씨(해방후 京城放送局長을 지냄)가 쾌히 승낙, 매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학교생활을 하다보니 졸업때가 되었다. 京城大學이 갓 設立되기는 했는데 醫學部만 생겼을뿐 다른 理工系는 全無, 물론 法文部는 있었지만 科學을 하려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못하고 더우기 醫師나 辨護士가 되기는 무척 싫었다. 어린 소견이었지만 사람들을 괴롭혀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理工系라고는 工業高等뿐이었는데 工科는 하기 싫어 더욱 갈매가 마땅치 않았다. 또 物理先生이 있었는데 일본인 인데도 아주 열심히 가르쳤고 인기도 좋아 物理學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곧바로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 가서 들어 간곳은 成城고등학교. 東京 시내 私立고등학교로 자유주의, 全入교육등 이상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유명했으며 이

학교의 奇拔함이 맘에 들었다.

제 1고보시절은 학교 갔다 라디오나 카메라나 만지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학교에 가보니 세계가 아주 넓어 공부할 것도 많고 강의 科目도 너무 많았으며 理科인데도 文學, 藝術까지 가르쳤다. 아주 맘껏 공부해보기로 결심한 나는 하루종일 도서관에 박혀서 책만 보았다. 도서관 책번호 1번부터 모두 보아 나갔는데 자연과학 보다는 宗教, 哲學, 文學, 藝術등 각분야를 골고루 보았다. 이때 얻은 지식이 지금 내지식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것 같다.

◇ 日本에서는 信仰生活에도 執着 ◇

외국생활의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人生을 懷疑하게 마련인가? 教會생활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한 教會에만 다니기도 무어해 학교내 敎인들이 「금의 모임」을 만들었다. 숲속에 문헌 이학교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씨클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숲 밑에 모여 예배도 보고 토론도 하며 有名人士를 초청해 강연도 들었다. 이러다 보니 이사람 저사람 쫓아다니며 강연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때 특히 감명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

첫째는 無教會主義者로 유명한 「지무라·간쵸」, 나는 특히 이사람을 좋아 했는데 「지무라」씨는 교회중심이 아니고 聖經만 연구하는 성경연구회를 만들어 每週日 시민회관 같이 큰곳에서 강연을 했다. 이런때는 학생들로 초만원이어서 들어가지도 못할정도였다.

둘째는 유명한 天主敎神夫人 「유하시다」

셋째는 같은 급우의 부친인 救世軍 「야마모도」 대장.

넷째는 社會운동가인 「가가와·도요히고」

이들을 따라다니며 設敎, 演說, 일반토론을 벌였다. 3학년때는 「가가와」를 동경해 빈민굴에 들어가 자취를 해가며 설교도 했다. 그러나 내설교라는게 고등학생의 수준이고 理想만 앞세우니 짧은實力에 설득력마저 모자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설교보다 입을 것이나 먹



〈京城第1高普시절 파고다公園에서 記念촬영. 2列 右에서 셋째가 筆者〉

을 것을 먼저주고 그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상만 앞세운 내가 알턱이 없었다. 아물든 이때의 고생덕택에 내인생관이 확립되었고, 인생을 생각하는 폭도 넓어졌다.

당시 校長이었던「오가와」氏는 지금까지도 교육자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되어 있으며 그뒤 우리들은「다마가와」大學總長으로 모시기도 했다. 이분의 좋은 말씀과 훌륭한 인격으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뜻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信仰만은 마음대로 되지 안해 고민이 많았다. 이런가운데 다시 졸업을 마지했다.

東京帝大가 있었지만 成城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姑息的이고 틀에 박힌 학교가 싫어졌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正道이겠으며 무시험 입학도 가능해 東京帝大 진학이 어쩔 수 없었는데 朝鮮人인 내가 그곳을 나와보야 출세 할것 같지도 않았다. 그럴바에야 人間의으로나 좀 성숙해보자는 생각에 다른곳으로 진학기로 결심했는데 北海島帝國大學이 생기면서 理學部학생을 처음으로 모집했다. 1회 입학생이라는 야릇한 호기심과 선생 시설모두 새것일테니 거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 또 북작거리는 東京보다는 대륙적인 北海島가 추운것이 좀 좋은 되었지만 한국이나 만주처럼 아카시아, 포푸라도 많아 더욱 마음에 들어 진학기로 결심했다.

이곳만해도 시골이어서인지 나는 首席合格의 영광을 찾아해 이것 또한 즐거운 일이었다.

◇ 彷徨끝에 物理學을 專攻 ◇

어렸을때부터 科學에는 흥미가 있었나 보다. 보통학교를 다닐때, 시골학교 였지만 전화기·전지를 이용한 시설등 실험설비가 좀 있었다. 마침 아버님이 이학교 선생이어서 방과후 실험 시설 이용이 비교적 용이해 많은 작난을 컸으며 기계를 망가뜨려 크게 당황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그렇지만 그뒤 내가 物理學에 定着하기까지에는 숱한 彷徨이 있었다. 成城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나에게는 커다란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動物學을 가르치던 선생이 動物學전공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나자신도 흥미가 있어 열심히

꽃이 다녔으나 마지막 결심단계에서 動植物生生物学을 하려면 그림(Draw)을 잘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림솜씨가 형편없는 나로서는 포기하지 않을수 없어 크게 당황했다. 지금도 그때 동물학을 못한 영향이 남아 있어 집에서 원앙(鴛鴦)을 기르고 있다. 당시 「다가지가」라는 일본貴族이 있었는데 새를 무척 좋아해 못새를 집에서 기르고 표본도 수백점씩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어 어떻게 든지 鶴을 집에서 기르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학은 天然記念物이라서 사육이 불가능해 평대신 닭이라고 원앙을 기르게 되었다.

또 하나는 心理學교수의 끈질긴 心理學 권유였다. 정신병원을 견학할때 마다 열심히 질문을 하고 이것저것 學問의인 내용을 물어 보았더니 이놈좀 붙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선생의 스승은 당시 유명했던 法政大의 심리학 교수였으며 자기 체자인 우리선생에게서 내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 포섭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心理學은 文科生들만 전공했고 理科生은 전혀 없었다. 實驗心理學등 理科生이 필요한 분야가 있었지만 여의치 않던 차나같은 理科生이 걸려들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 하던 참이었다.

우리선생은 안가도 좋으니 시험이라도 쳐보라는 것이었고 마치못해 시험을 보는데 내게 왜이렇게 방황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시간은 外國語시험으로 獨逸語였는데 이름과 수험번호만 쓰고 그대로 白紙를 냈다.

며칠후 合格통지서가 날라왔다. 합법적인 거절을 정중히 사양한 이 통지서를 들고 선생을 찾아가 心理學은 하고 싶지도 않고 독일어는 백지를 냈는데도 합격이라니 그런 大學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해서 物理學을 가운데 두고 뱀을 돌던 나는 다시 定着하게 되었다.

◇ 學業에 專念했던 北海島大學時節 ◇

北海島에 가보니 東京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책을 읽는 버릇도 없어지고 實驗에만 열심히 매

달렸다. 좋은 自然景觀에 열심히 놀러도 다녔다. 흰방울 꽃이 그렇게 많은 들판은 散策과 思索에 더없이 좋았다. 緯度가 높아 여름과 겨울 밖에 없었으며 봄이 되면 잠깐 사이에 꽃이 활짝피고 여름이 끝나면 곧바로 없어졌다.

北海島大 理科는 갖생겼지만 農科는 아주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그때 農科林學科교수로 美國人「클라크」라는 분이 4년간 있었는데 어떻게나 학생들을 잘지도 했는지 이분이 떠나는날 부둣가 까지 全校生이 줄을이어 배웅했다. 배에 오른 이교수는 “All youth be Ambitious!”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는데 이말은 그후 北海島大學의 전통이 되었으며 나도 큰감명을 받았다.

그때 物理學科에는 학생은 얼마되지 않았으며 電磁氣學, 靜電氣, 光學, 理論物理등 4분의 교수가 있었다. 졸업학년인 3학년이 되자 專攻選擇에 고심했다. 理論物理는 數學만 갖이고 다루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싫었고 電磁氣學교수는 獨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磁氣學이 별로 흥미가 없었고 교수도 무뚝뚝해, 요새 말로 맛대가리가 없어 싫었다.

靜電氣교수는 英國퀸브릿지大 출신인데 불임성이 있어 좋기는 했으나 분야자체가 좋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光學을 전공했는데 이교수는 불임성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人格者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나는 이교수의 지도로 졸업논문을 썼다.

